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휘경지구 아파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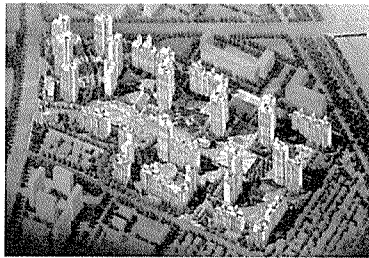
의정부시 의회청사

휘경지구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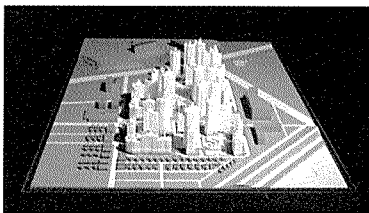
Huigyong-District Apartment

국립건설시험소가 이전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서울 동대문구 휘경지구에 이상적인 주거단지를 건립하기 위하여 현상설계를 공모. 그 결과 총 1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강남건축(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 안이 선정됐다.

▶ 최우수작 / 강남건축(조병기+곽동수+최병찬+정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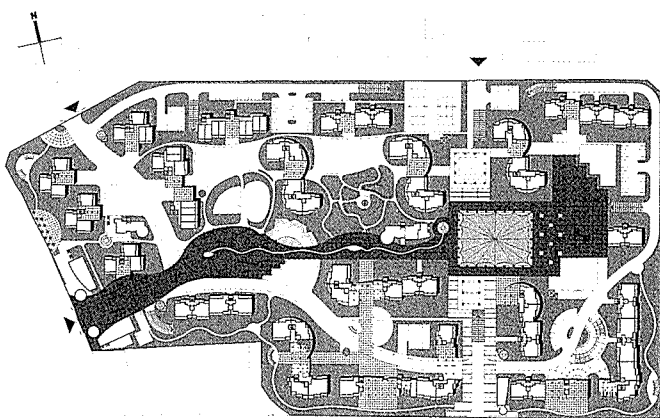


조감도



모형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49-309일원
대지면적	79,286㎡
건축면적	13,599.84㎡
연 면 적	272,016.65㎡
건 폐 율	17.15%
용 적 률	240.35%
도 로 율	17.13%
녹 지 율	45.2%
계획 세대수	임대 - 12평형 : 400세대 18평형 : 400세대 분양 - 25평형 : 822세대 34평형 : 408세대
계획담당	박중서, 박옥진, 이승기, 엄명준, 김문경, 이성희



종합배치도

기본방향

- 부지 축에 부응하는 주동 배치 축 설정으로 단지 전체의 정형성을 부여
- 주변 배봉산 및 중랑천의 자연환경을 단지내로 유입
- 인근 단지 및 주택지의 시각 개방을 위한 주동 및 층수계획으로 조화있는 지역개발
- 단지 중앙에 동서를 잇는 보행물 도임으로 대형 옥외공간 제공
- 출입구를 분산 배치하여 주출입구의 교통량 분산 효과

배치계획

- 부지 축 및 도시 축에 부응하는 주축 설정으로 단지의 정형성 부여
- 도로변 타워형 주동배치로 Land Mark로 부여
- 동서를 잇는 보행물에 상가, 관리시설 및 광장을 연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 증대
-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동간의 충분한 이격 및 남향 위주의 주동 배치
- 인접 주택지의 Privacy 침해 및 시각 개방을 위해
 - 낮은 층수의 주동을 배치
 - 저층부에 피로티 계획으로 시각개방감 부여
 - 동서, 남북의 시각통로를 위한 변화있는 층수계획
 - 축벽 및 Open Space 확보로 개방감 부여

Open Space / 시설물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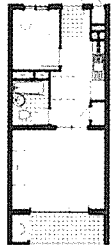
- 유기적, 체계적 공간 구성
- 주변 자연환경을 단지내로 유입시키는 녹지공간 및 수공간 계획
- 단지 동서를 주활동축으로 하는 보행물 설치와 구심적 역할을 하는 열린 마당, 한마음 마당 설치
- 생활시설 및 복리시설을 보행물 주변에 배치 접근성 및 인지성 도모
- Open Space의 적절한 분산배치로 개방된 단지 조성

보행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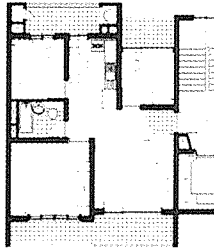
- 주출입구에서 동서를 잇는 보행물을 중심으로 보행축을 설정, 쾌적하고 안전

한 보행체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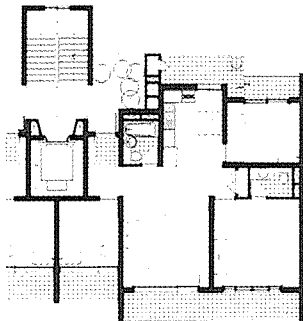
- 주동을 통과하는 동선에 피로티 설치로 간결한 보행동선 수립
- 차량동선과 교차하는 부분의 차량동선을 지하화하여 안전한 보행동선 수립
- 단지 외곽으로 산책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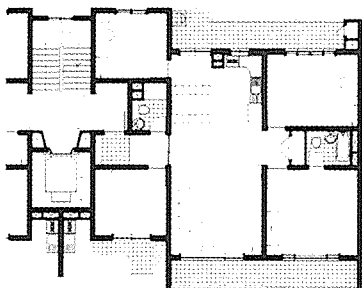
12평형



18평형



2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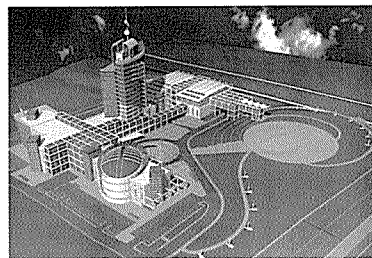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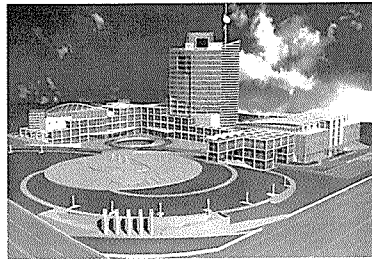
34평형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Small & Medium Industry Support Center

경기도에서는 지난 4월 30일,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계경기의 심사결과, 총 9개 작품이 제출된 가운데 무영건축(안길원)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우수작으로는 건원국제건축(한현호)안이 선정됐다. 이번 설계경기의 당선작에게는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졌으며, 우수작에게는 2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오는 99년 준공예정이다.

▶ 당선작 / 무영건축(안길원)



조감도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111-1번지 일원
 대지면적 99,900㎡
 건축면적 8,298㎡

연 면 적 42,088㎡
 건 폐 율 8.31%
 용 적 륭 30.8%
 규 모 지하3층, 지상16층
 구 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알미늄시트패널, 복층유리, 메탈패널

도로레벨과 대지경사의 현격한 차이, 대지내 급경사 재단시설과 부대시설의 기능상 분리, 재단시설내 복합적 기능, 첨단시설의 이미지, 지원센터로서의 상징성 등 많은 제한 조건들을 풀기 위하여 상당히 많은 대안들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과정 및 대안들에 대한 평가 속에서 전면부 남측면을 시민광장으로 하고 경사가 완만한 북측면에 건물을 배치하면서 대지의 경사를 이용하는 본 계획안이 탄생되었다. 제한조건들에 대한 디자인 해결은 단순성에서 복합성으로의 전환이라는 개념에서 시작되었다.

배치에 대한 해결로서, 재단시설의 건물 매스는 단순한 직사각형의 매스를 T자 형태로 교차시키고 이렇게 형성된 건물 매스를 대지의 경사에 따라 배치하고 50m 도로변에 2단계 개발의 부대시설을 브리지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건물 매스에 대한 해결로서, 단순한 매스에 의하여 기본의 축을 설정한 후 기능에 따라 형태가 변경되는 Division의 개념이 아닌 Addition의 개념에서 건물의 매스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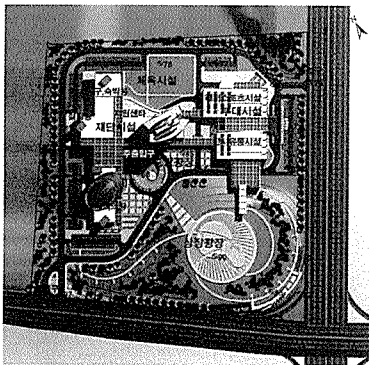
- 8m×8m 모듈의 Cubic Frame Structure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4개층 Open의 아트리움, Circulation, Green Space 등은 건물내 복합기능이 각각 분리되고 연결되는 순환 기능을 갖는다. 또한, 8m×8m Cubic Frame Structure는 유리로 마감하여 외부의 자연환경이 건물 내부까지 인입되는 투명성을 부여하고 차후의 증축 및 내부공간 변화에 융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통약기(진고)의 형태를 반영한 타원의 원통형 매스는 국제회의 시설로서 계란 형태의 내부공간기능과 Metal Frame과 유리로 마감된 서비스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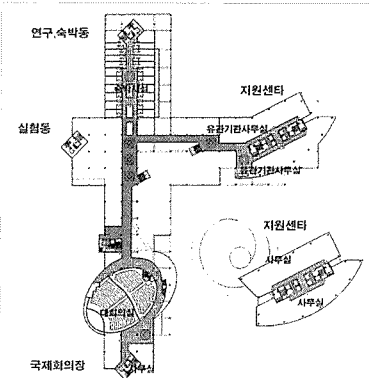
이 교차되어 Solid와 Void Space가 어우러지도록 하였다.

- 기존의 건물 디자인에게 보여졌던 Minor한 Core Space를 건물 매스의 변화 요소로 활용하면서 Iconic Function과 동적 느낌을 갖도록 건물 속에 변하는 사선으로 배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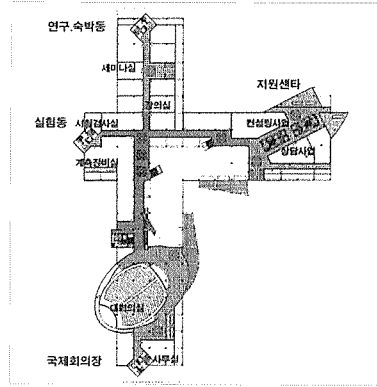
- 국제회의시설, Core Space와 같이 동서의 축에 따라 사선 배치된 지원센터의 오피스 타워는 저층부, 중층부, 상층부에 각각 Green Room 및 휴게 발코니를 설치하여 입면 형태에 변화를 주고 전통개념에서의 숲대와 같이 지원센터를 High-Rise화하여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적 이미지를 부여토록 하였다. 시민의 휴게광장, 앞동산, 도로 소음에 대한 완충역할로서 남측 전면부에 기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수목이 어우러진 전면광장, 쉼터광장을 통한 지하공간 연계, 대지 경사를 이용한 지하층 Open, 첨단시설의 이미지로서 유리, Metal Frame, Aluminium Sheet Panel의 사용, 전통창호 모듈에 의한 입면 모듈구성 등도 본 계획안에서 고려되었던 점들이다. (글/이명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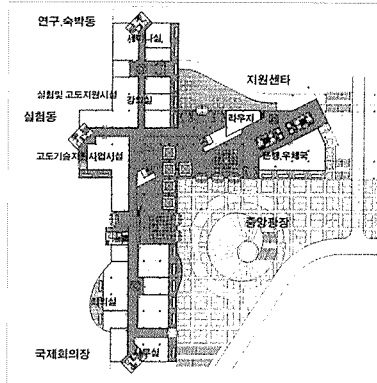
배치도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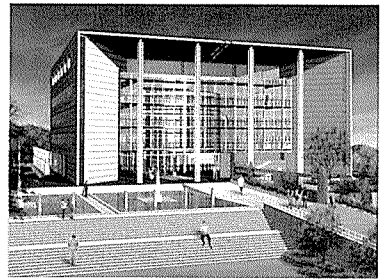
의정부시 의회청사

Committee Hall, Euijongbu-shi

의정부는 의정부시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코아건축(전병직)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지난 5월 9일 발표했다. 이번 설계경기는 총 13개 작품이 제출되어 당선작 외에 우수작으로 하나건축(김영규)+미래건축(홍장표)안이, 가작으로는 한국건축(이윤경)안이 각각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명호(중앙대 교수), 박영기(연세대 교수), 심우갑(서울대 교수), 최찬환(시립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김상식(부림건축), 김영섭(건축문화), 김인철(아르키움), 변용(원도시), 시의원, 공무원

▶ 당선작 / 코아건축(전병직)



투시도

위 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326-7의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6,685㎡
건축면적	2,110㎡
연 면 적	7,615㎡
건 폐 율	12.65%
용 적 륜	37.6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30 화강석버너구이, THK18 컬러 투명복층유리
계획총괄	서민원
계 획	김혜자, 정민영, 정성식
조 경	박영임
컴퓨터그래픽	정재욱, 이시한, 민재원, 강보금

관문(Gate)

본 계획안의 가장 중요한 계획의 출발점 (Design Motive)으로, 민의수렴의 관문으로서 의회청사 고유의 성격을 표현하며,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는 의정부의 지역적 특성과 더불어 통일을 지향하는 관문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공공성(Public Spir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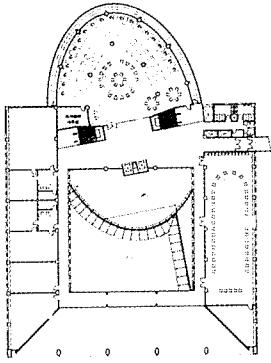
절제된 개념으로 공공성을 표현함과 동시에 기존의 의회청사와는 차별화된 '새로움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며 전면 투명 유리를 통해서 여과된 형태의 표현 및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나타낸다.

변화와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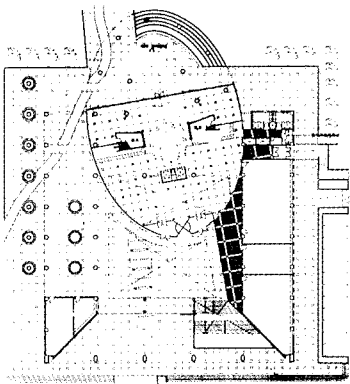
(Variation & Experience)

공간의 위계에 따른 단계적 체험은 대칭적 질서속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 및 내·외부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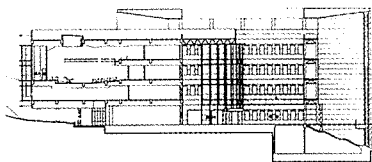
상호관입에 따른 공간연출 등은 이러한 변화에 따른 시도이며, 기존환경유지를 위한 수경공간 도입 및 열린공간으로서의 개방감은 계획의도에 합리성을 부여한다. <글/서민원>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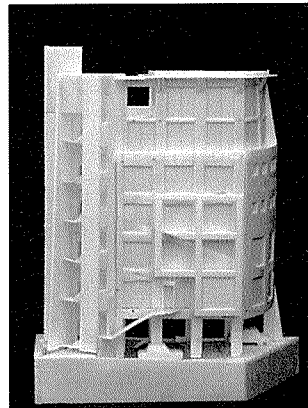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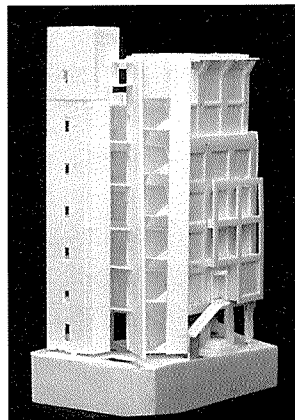
계획작품 blueprint

서교동 F빌딩
은평구 체육문화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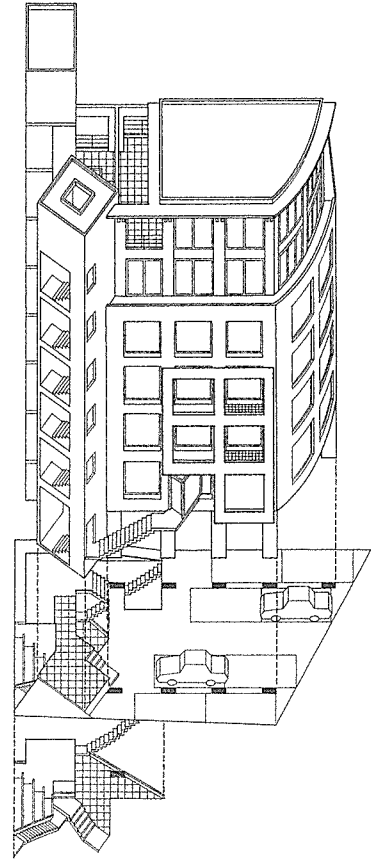
서교동 F빌딩
F Bulg., Sokyo-dong
손기찬 / 동이건축사사무소



모형1



모형2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05-5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근린생활시설(카페, 웨딩샵, 뷰티샵, 레스토랑)

대지면적 276㎡(83.48평)
건축면적 165.22㎡(49.97평)
연면적 959.94㎡(290.38평)

건폐율 59.86%
용적률 303.84%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8대

설계담당 하혜란, 김태임, 배길효, 이진욱

구조계획 조현성

기계,전기설비 선화엔지니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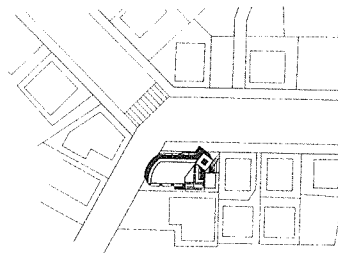
도시가 크게 변모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특히 상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업종, 업태들의 출현으로 골목길, 큰길가, 넓은 거리 할 것 없이 새로운 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도시속의 정주자들은 내몰리고, 반드시 좋다고만 할 수는 없었던 도시의 생명력은 사라져 가고 있다.

때로는 낱아빠진 거리에 끼어 들어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고는 이내 물거품처럼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이동성과 변화성(유행)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물결은 곧 우리의 도시가 일과성의 소비적인 거리로 변하고 있는 오늘의 실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홍대앞에 위치한 작은 계획부지는 이 지역의 적극적인 변화에 부딪혀 최대한의 경제적인 볼륨과 함께 패셔너블한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었다. 빌딩속의, 건축디자인을 훨씬 뛰어넘는 대단히 고급화된 인테리어로 치장한 점포들이 경제원리와 결부되어 도시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채 거리를 휘어잡고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상업성으로 인해 자칫하면 우리들의 거리를 피상적으로 알고 넘어가 패션으로만 흐르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나의 우려이다. 도시속에 남은 건축이란 그 도시의 문맥이며, 골격을 형성하고 성격을 표현해 나가는 것이다. 도시속에 건축은 단절된 내부공간이 다른 세계가 아니라 도시의 흐름속에, 도시속에 내재함이다. 1층의 피로티는 코너부지로서, 거리와의 연속성과, 차량의 용이한 접근, 만남의 장소로써 제공되어지며 좁은 대지에 상하 수직동선은 새로운 시선으로서 도시와 내부를 향해 열려져 있을 것이다. 좋은 도시를 겨냥하는 데는 층간벽면은 반드시 사유가 아니고 도시의 것이라는 인식하에 설비적인 기능을 제외한 모든 벽면은 기꺼이 개방시키고 내부의 움직임과 시선은 빛과 바람에 의한 연출을 생각해, 때로는 그와 같은 시간적, 자연에 대한 변화를 의식하였다. 그것은 지상으로 뿐만 아니라 지하로 이어지는 아침, 낮, 밤-하루종일 점포와 건축물의 얼굴이 보이게 되고 아침은 아침의 모습(패셔너블한 거리는 아침이 없다), 낮의 활동적인 준비, 밤의 빛과 시간변화에 대응한 신선한 연출은 자기도취적인 커다란 간판이 아닌 건축물 자체의 광고탑이라는 매력은 없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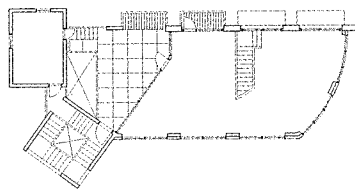
도시야말로 우리들의 숲이며, 도시공간은 공간을 발생시키는 건축에 의해 성립된다. 조그만 이곳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결코 시각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바람,

빛, 커피향기, 나무와 돌연 마주치는 친구와 같은 만남의 연속적인 공간을 의도하였다. 인테리어와 같이 폐쇄된 공간의 픽션성을 당연히 기대할 터이지만, 이곳에서만이라도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는 희망적인 지속성과 조응성을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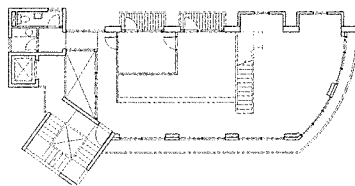
「만물은 분할이 불가능한 전체적 운동이다」 <데이비드 범> (글 / 손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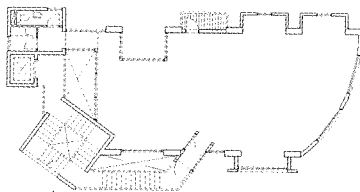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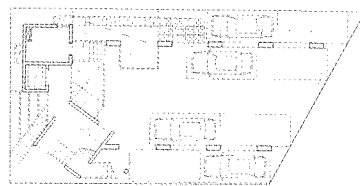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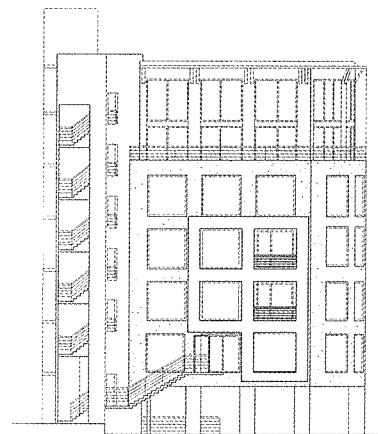
6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입면도

은평구 체육문화센터

Culture & Sports Center,
Eunpyong-gu

심우근 / (주) S.A.C 건축사사무소



조감도(현상설계 우수작)

대지위치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242 -9외 3필지 갈현근린공원내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9,070㎡
도로현황	8m 도로
연 면 적	7,566.54㎡
건축면적	1,787.42㎡
건 폐 율	19.71%
용 적 륜	49.52%
규 모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2층, 지상3층
최고높이	23m
외부마감	①18컬라 복층유리, 알루미늄 패널(지정색) 동판지붕재
주차개요	60대(장애인주차 6대 포함)

법정: 49대
 조경개요 18% (1,632.60㎡) 법정 : 15% 이상
 설비개요 옥외시설 : 야외공연장, 주차장, 선큰가든, 파고라 등의 휴게시설

계획의 배경

지자체 실시 이후 여러 자치구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 건립이 활발한 가운데 실시된 이번 은평구의 구민체육센터 건립은 은평구민의 생활체육 및 여가 활동공간의 제공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 도모를 목적으로 다양한 체육시설과 휴게공간의 마련을 건립취지로 하고 있다.

갈현근린공원내에 마련된 부지는 동측으로 9m 도로를 면하고 있으며 남북으로의 고저차로 인해 최대한 지형에 순응하는 건물배치와 외부공간의 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각기 다른 체육시설의 복합적인 수용을 위해 합리적인 Zoning을 통한 기능수행의 극대화를 필요로 한다.

배치계획

- 남북으로의 고저차를 최대한 활용
- Approach-휴게공간을 사이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을 양분하여 원활한 진입을 유도한다.
- 옥외 체육시설, 휴게공간 및 야외공연장 등의 부대시설을 분산배치시켜 주변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 다양한 휴게시설을 마련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진입을 유도한다.
- 진입광장, 공개공지, 선큰가든, 분수대, 파고라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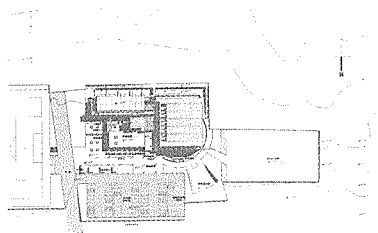
- Mass의 기능별 분리배치(중정)-동측 광장으로부터의 진입유도
- Atrium 공간의 마련-채광면적의 극대화
- 배면부에 부지를 에워싸는 수직동선을 마련하여 Core와 연결-입체적인 동선 체계의 유도
- ㄷ자형의 Mass를 Bridge로 연결-동

선에 순환성을 부여(광장과 중정간의 공간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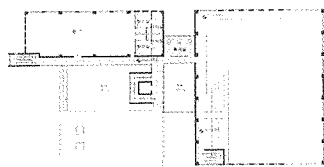
- 실의 용도변경 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가변성 확보-간이칸막이 벽 사용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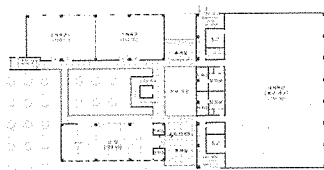
- 통일화된 입면패턴을 통한 분리된 Mass의 일체화
- 알루미늄 쉬트 및 경량 Truss 등의 High-Tech한 소재의 사용-구조미의 표현
- 전면계단을 Curtain Wall로 처리하여 외부로의 시야확보를 확보한다.
- Circulation의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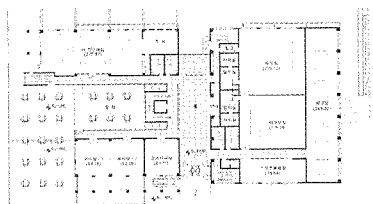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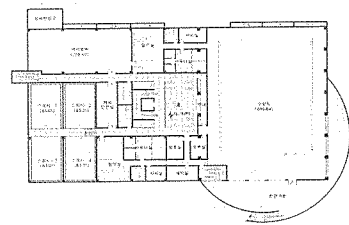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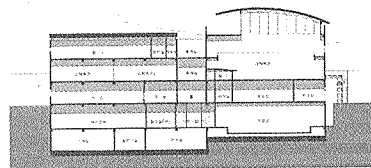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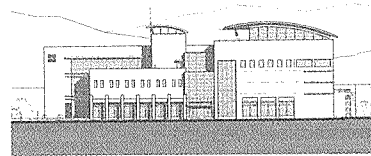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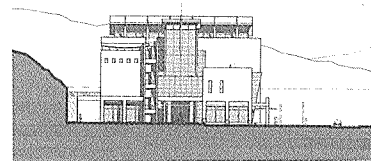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중단면도



정면도



좌측면도